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박이레 선교사입니다. 아이들 일로 홍수가 나기 전에 한국에 갔다가 이주 만에 네팔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홍수가 났을 때 현지에 없었던 것을 감사했지만 한국에 있는 저는 현지에 함께 있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자마자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가 심한 하류 10km 마을과 도로가 쓸려 가버린 상류 5km 정도를 남편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장보고 걷고 사람들을 만나던 동네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어떻게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지...’ 남아있는 것들도 모래와 자갈로 덮여 단단히 굳어가고 있고, 강의 물길은 달라져 버렸고... 홍수가 지나간 곳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홍수전 마을 사진



홍수 후 바뀐 모습을 직접 찍음



SNS에 있는 홍수전과 후 모습

홍수 나기 2주 전에도 그 길을 따라 미션스쿨로 단기팀과 올라갔었습니다. 한국에서 홍수가 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시간에 남편이 그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지 않았던 것을, 단기팀이 그 기간에 없었던 것으로 감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늘 보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흐르는 강물은 여전히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초록으로 채워져 있던 강 주변은 흙색으로 바뀌어 사람이 가지도 살지도 못하는 곳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주변을 삼켜버린 강을 바라보며 ‘그날 이 길을 가고 있었다면 나도 여기 없겠지. 물이 오는 것을 봤다면 오토바이를 돌려 달릴 생각을 했을 거야. 산으로 오르려고 하지 않았을 거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직 미션스쿨 있는 상류 지역은 언제 복구될지, 가는 길은 더디게 작업이 되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를 뺀 네팔의 다른 지역들은 빠르게 이 참사를 잊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픕니다. 가족을 다 잃고 나만 살았다는 것이 너무 슬프습니다. 목회자를 잃은 성도들에게 가족을 잃은 성도들, 집을 잃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의 은혜와 위로를 말 할 수 있을까요? 피해를 당한 목사가 찾아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지진 때 가족을 잃고 이번에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는 목사님을 안고 함께 우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살롬이 이 땅에 정말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때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롬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은혜가 강물같이 다시 넘쳐흐르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후원으로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겨울날 준비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집들이 너무 많이 쓸려가서 남은 것도 없고 있다고 해도 쓰고 닦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 많은 수재민이 다 방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쉼 터를 형성한 지역에 긴급구호품을 나누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비둘 지역과 가까운 곳은 선교센터 교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긴급구호품-쌀 25kg, 달 2kg, 식용유, 소금- 400가정, 생활용품(세제, 비누등) 100가정, 이불 세트 100가정, 가정용 가스 50개, 주방 세트 80가정, 학용품과 가방 100개 등을 나누었습니다.



2. 주변 수재민이 머무는 학교나 관공서는 ‘네팔 한인 선교사협의회’와 함께 동역하여 긴급 구호품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약 900여 명)



3. 홍수 피해가 심한 패드로워피와 러수아 수재민들이 있는 칼리키스탄, 단체에 긴급구호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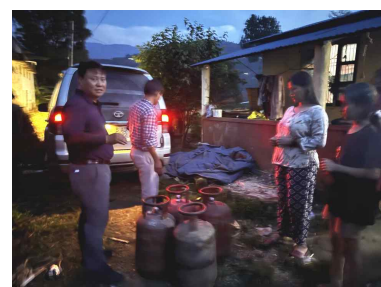
을(쌀 25kg, 달 2kg, 식용유, 소금등) 약 300 가정에 나누었고, 수해의 상류 지역인 러수아 지역을 더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태양열 배터리를 40여 개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네팔 전체가 가정용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수 후 물에 떠내려가는 가스통을 서로 가지기 위해 싸우는 동영상이 올라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가스 80개를 어렵게 구해서 수재민과 이웃을 섬긴다고 정작 교회와 목회자 자신은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선교센터 주변 교회에도 가정용 가스를 나누었습니다.



홍수로 다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10분 만에 갈 거리를 산을 돌아 5시간 가서 가정용 가스를 나눔.



선교센터 주변 이너르바미 2 교회, 변달 2 교회, 피부말, 데비간 교회에 가정용 가스를 나눔

5. 따또빠니(미션스쿨이 있는 마을)와 주변 마을에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금 태양열 배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태양열 배터리 300여 개를 준비해서 따또빠니 이장과 협력해 헬리콥터를 이용해 전달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6. 아직 상류 지역인 러수아 지역으로 가는 길과 다리가 연결되지 않아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을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으로 난 길로 가봤는데 오토바이로 9시간, 차로 15시간

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다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시급한 가정용 가스 100개와 식료품을 준비해서 갈 때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건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잘 전달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제 단발성 긴급구호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11년 전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마을 휩쓸어버려 새로운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만든 '지진 희망마을'처럼 이번 홍수도 마을 자체가 없어진 지역이 많아서 그때와 비슷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수로 마을이 완전히 사라진 지역 중 성도들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이주 지역을 찾고 함께 신앙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그 우상의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마을에서 무시당하고 숨을 수밖에 없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허언약, 박이레, 빛, 별, 감사, 지혜 드림>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37010206871 허현일반후원

(후원 내용을 표기 해주시면 목적에 맞게 용하겠습니다. 홍수피해, 미션스쿨, 교회건축, 신학교등)

히말리아 미션스쿨 건축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5501-04-010447 비전아시아미션

이메일 : jx-guide@hanmail.net, 1004guide@gmail.com

카톡아이디 : jxguide // 연락처 : +9779801030060, 010-8818-4620